



10월 10일 조계사에서 열린 2014 서울시 전통사찰 'Week' 선포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이 팔모등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타악그룹 아단법석의 공연도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조계사에서 진행된 사찰문화체험행사에 참석, 한지거울만들기(사진 왼쪽)와 단청그리기 체험(사진 오른쪽)을 했다.

문화의 寶庫... 서울은 전통사찰 재발전 중

보고

2014 서울시 전통사찰 'Week' 선포식

“전통사찰은 문화를 계승하고 창출하는 시민의 자량이자 정신적 가치를 모두에게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가 10월 10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2014 전통사찰 주간(Week)'을 선포했다.

전통사찰 주간은 서울시 전통사찰과 사찰 문화유산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마련된 행사. 사찰을 전통문화 자산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서울시 의지가 담겼다.

선포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 내빈들과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자승 스님은 “1천7백년동안 전국 각지에 건립된 수많은 사찰은 우리 삶에서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며 “고유한 민족문화를 형성하는데 공헌해온 전통사찰의 가치를 국민들이 함께 향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은 세계에서도 충분히 아름다운 도시다. 2천년의 시간이 깃든 전통을 담아낸 곳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며 전통사찰을 문화의 보고(寶庫)라고 높이 평가했다. 향후 서울시 전통사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사 참가자 대표 11여명이 전통 팔모등 모양으로 제작된 박을 터뜨리며 행사 시작을 알렸다.

선포식에 맞춰 다양한 사찰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조계사를 찾은 일반인들은 매듭, 전통사찰 지도, 페이퍼토이, 족두리 연등, 한지거울 만들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족두리 연등 만들기에 참가한 이풍남씨는 연신 보랏빛 종이를 곱게 꼬아냈다. 조계사를 찾았다가 우연히 행사에 참여하게 된 이씨는 “초등학교 졸업 후 이런 공작을 처음 해보는 것 같다”며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한것을 아쉬워했다. “절에 오니 마음도 평안 해지고 이렇게 재미있는 만들기도 한다”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10.10~12 전통사찰 58곳서 체험행사

순례·템플스테이·음악회 진행

'사찰 문화=시민 자산' 인식 확산

선포식 후 이어진 문화공연에서는 공연팀 아단법석의 타악 퍼포먼스가 열렸다.

흥겹게 장단을 맞추던 동대부여교 박세미양은 “나도 모르게 흥이 난다”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박양은 “그동안 불교하면 국사책에서나 접할 수 있어서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불교가 종교를 넘어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한 부분이라는 걸 새삼 되새길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매듭만들기 자원봉사를 한 신호승(인천 파라

미타 청소년협회 사무처장)씨는 “참가자들이 만들었던 동심결(同心結) 매듭은 마음을 한데 묶는다는 뜻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매듭에 담긴 깊은 뜻에 감탄하곤 한다. 자연스럽게 동심결 매듭을 통해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전통사찰 주간은 조계사 선포식을 시작으로 10월 12일까지 서울시 전통사찰 58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조계사·봉은사·화계사·금선사·묘각사 등 서울 시내 템플스테이 사찰 5곳에서는 1일 사찰 체험과정이 템플라이프가 무료로 진행됐으며 진관사에서는 국형수묵재와 함께 시민들에게 연잎밥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흥천사에서는 불화장과 함께 불화 및 단청 그리기 체험을 진행했으며 전통사찰 마실길 걷기, 도심사찰 투어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서울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이벤트도 개최됐다. '전통사찰 Go! 인종샷 찍Go!'는 전통사찰 주간 동안 전통 사찰 5곳을 방문하고 사진을 찍으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사였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대학생 서포터를 대상으로 'I Love Seoul, I Like Temple 스토리 콘테스트'를 진행, 동영상 사진 등을 SNS에 올리면 차후 심사를 통해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통사찰의 요청 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사찰 시설정비, 사찰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연구를 해왔다.

글=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시민 위한 열린공간으로 거듭나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참으로 뜻깊고 유익한 날이다. 민족문화의 산실 전통사찰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전통사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돼 마음까지 풍성하다.

불교는 1천7백여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찰이 건립되고 법당이 이어져 전통사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에서 호흡을 같이하고 있다. 전통사찰은 일상에서부터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민족

문화를 형성하는데 공헌해왔다. 때문에 서울시 전통사찰 주간은 서울 곳곳에 살아있는 전통사찰의 가치를 시민과 국민이 함께 향유하고자 하는 일이다. 유구한 역사에서 불교문화가 민족과 함께 했듯, 전통사찰은 현시대를 대표하는 시민의 자량이자 모두와 정신적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 우리 모두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

“전통사찰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할것”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은 세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어느 도시도 가지지 못한 2천년에 달하는 전통이 있고 유서깊은 전통사찰이 있다. 뉴욕, 싱가포르 등에서는 찾을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고전적 미가 살아있는 도시가 얼마나 되나.

사찰은 한국의 전통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보고다. 역사는 물론 음악, 미술 모든 분야에서 불교문화를 제외하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

산을 보존, 계승하려고 한다. 서울시 문화유산을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전승해 나가기 위해 전통사찰 주간을 올해 처음으로 선포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역사문화자원화를 적극 추진, 이 행사가 전통문화대축제로 자리잡도록 서울시에서 꾸준히 지원해 나갈 생각이다. 사찰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법령에서 유연하게 개정할 생각이다.

창간 20주년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 조계종

계율청정종단

■ 종 정

총무원장: 혜인 사서실장: 대산

울 원 장: 혜일 중앙선원장: 도일

■ 원 로 원: 성민,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방 장: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수원

□ 총무원

- 부 원 장: 동안, 도불
- 총무부장: 천산
- 재무부장: 혜만
- 교무부장: 혜일
- 사회부장: 정덕
- 문화부장: 지운
- 총무국장: 남산
- 재무국장: 정일
- 교무국장: 지성
- 사회국장: 법일
- 문화국장: 혜인
-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 교육원장: 상산
- 교육부원장: 덕산
- 교육부장: 태산
- 교육국장: 진산
- 포교원장: 정산
- 포교부장: 법진
- 포교국장: 무량
- 국제포교원장: 중산정목
- 기획원장: 혜타
- 기획실장: 노사나

□ 불교조계종 신문사

- 발행인: 혜인
- 편집인: 문화부장: 대산
- 편집기자: 권소라
- 사회부장: 윤산
- 사회부장: 이근진
- 사회국장: 법산
- 유현석
- 이사: 혜원, 정산, 각원, 덕산, 향인, 금산, 혜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 종단법인

-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 사단법인 전지무예도협회
-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 사회복지법인 정향
- 사회복지법인 인주
- 비구니 회장: 지성
- 부장: 혜승
- 교수사: 덕산
- 총무: 금산
- 부회장: 혜일, 혜산, 월산
- 재무: 도은, 정해
- 교무: 본각, 수정
- 교육: 법신, 성담
- 문화: 남산, 수옥
- 포교: 보명, 홍산
- 강원: 각원, 현타
- 복지: 향인, 화광
- 감찰: 서호, 보현
- 불화: 혜담, 인산, 진화
- 의식: 련성, 지해

□ 총 립

- 서울총림 혜인사
- 삼화총림 백화사
- 부산총림 흥국사
- 경남총림 배천사
- 강원총림 조주선관
- 충북총림 청룡사

□ 지방교구 총무원장

- 서울총무원장: 상산
- 경기총무원장: 도불
- 경기서부총무원장: 자명
- 경기남부총무원장: 혜인
- 인천총무원장: 혜원
- 강원총무원장: 광덕
- 충북총무원장: 학산
- 충남총무원장: 혜덕
- 경남총무원장: 백산
- 제주총무원장: 천산
- 경남서부총무원장: 지명
- 경남창원총무원장: 지원
- 경북총무원장: 덕운
- 부산총무원장: 서봉금산
- 부산북부총무원장: 수산
- 전남광주총무원장: 지각
- 전북총무원장: 법성
- 제주총무원장: 청호
- 울산총무원장: 법철
- 일본오사카총무원장: 인혜
- 일본동경총무원장: 정대
- 미국뉴욕총무원장: 성산
- 중국남경총무원장: 해산
- 중국청도총무원장: 중산정목

□ 종단사업부

- 대표이사: 노사나
- 불교조계종
- 홍은상조: 김호철
- H&G: 이영호
- 금융사업본부

□ 전국신도회

- 고문: 김윤주
- 회장: 설주성
- 사무처장: 이상훈
- 부산신도회장: 허민
-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 청년신도회

- 회장: 손영진
- 홍보처장: 박영실
- 총무계장: 조일
- 기획실장: 심원일

□ 학교법인 삼화학원

□ 불교조계종대학원

- 학 장: 혜일
- 부학장: 일봉
- 교 수: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 조 교: 손정, 최정화
- 운영이사: 정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정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일,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 불교조계종대학원

- 원 장: 혜인
- 교 수: 상산, 정수, 송암, 성민
- 운영이사: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승,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목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 총 장: 오문화
- 부 학 장: 정오, 남산
- 한국총장: 손혜인
- 중고등학교장: 손영진
- 학생처장: 손영진
- 조 교: 심미, 유유, 손정
- 국제부교무과장: 이안산
- 운영이사: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총무원: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135-887
총무국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종단사업부: (02)549-1918

총무원장실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02)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02)511-1080

인터넷주소: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www.jogaejong.or.kr
불교조계종학원: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www.njutcm.co.kr
E-mail 주소: samhwade@hanmail.net
samhwade@naver.com